

행복을 위한 지혜로운 소비 비결



산업혁명은 종전의 수공업 소량 생산에서 대량생산 방식으로 발전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인류는 빈곤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전쟁 물자 공급을 위한 생산 방식을 구축했고, 전쟁 이후 이를 통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 산업의 중심이 되었고, 미국으로부터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가 형성되어 소비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에서 소비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는 미덕으로 칭송되기도 하였다. 소비는 인간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무엘슨(Paul Samuelson) 교수는 행복은 소비에 비례한다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행복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text{행복} = \text{소비} / \text{욕망}$$

일리 있는 표현이다. 분자를 보자. 과자 하나 보다는 둘을 먹을 때 좀 더 행복해진다. 같은 과자라도 더 비싼 고급 과자를 먹으면 행복도가 올라간다. 분모를 보면, 욕망이 지나치면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욕망을 절제하면 행복도가 올라간다. 사무엘슨 교수는 행복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를 개선시키는 것은 경제학의 영역이며, 욕망을 절제시키는 것은 종교의 영역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절약과 검소한 삶의 소비양식이 급속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70년대부터 깨지기 시작하였다. 경제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중부들은 과소비로 자신들의 상승된 신분을 과시하였다. 소득이 못 미치는 일반인들도 모방소비로 따라가려 하였다. 명품에 대한 모조품이 성행하는 것은 이러한 소비 풍조에서 기인한다. 97년 말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소비가 잠시 주춤하더니,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동안의 반작용으로 보상 소비욕구가 급속히 일어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 않은 소비 열풍이 지배하고 있다.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하여 행복도가 그냥 증가하지는 않는다. 지나친 과소비의 결과는 쇼핑중독증과 늘어난 빚을 우리에게 안겨줄 뿐이다. 오히려 절제된 소비가 소비의 만족도를 증폭시킨다. 지혜로운 소비란 어떤 것일까? 몇 가지 노하우를 적어 본다.

지혜로운 소비 요령

물건을 구입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가? 세일 때 구입? 공동구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마음을 굳게 먹고 기다리면, 그 물건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 가정에 물건이 부족해서 문제인가, 아니면 남아돌아서 문제인가? 남아서 처치 곤란한 물건들이 많다. 이것들을 돌려쓰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 갈 때,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해서 선물을 마련한다.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있는 새 물건들이 정말 많이 모인다. 양말, 치약, 비누, 우산 등 생필품이 몇 박스씩 나온다. 물건이 필요할 때는 얻을 때까지 기다려 보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교회에서 물건을 나



조성표 현재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독교문명연구원 회장,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세계관연구소를 맡고 있다. 전공은 재무회계이고,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CUP 2008), 『공학회계 (청람 2015)』를 저술하였다.

뉘 쓰기 위한 아나바다 장터나 바자회를 여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계속 기다려도 물건이 생기지 않으면 중고품을 구입한다. 못사는 나라도 아니고, 이 잘사는 나라에서 누가 중고품을 쓰냐고 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후진국일수록 중고품을 안 쓰고, 선진국일수록 중고품을 많이 사용한다. 미국 등 선진국 사람들은 주말마다 차고에 중고품을 벌여놓고 사고판다. 미국의 어느 중고품 가게의 구호인 "Find Treasures in Trash"처럼 쓰레기통에서 보물을 찾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중고품 구입도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건을 사는 최후 수단으로 '한 달 규칙'을 적용한다. 사고 싶은 물건을 적어 놓고 한 달을 기다리는 규칙이다. 멋진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사지 말고 이를 적어 놓고, 한 달 동안 기다린다. 그리고 한 달 뒤 살까 말까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 규칙은 충동 구매를 예방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다. 한 달 뒤에 가서 그래도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면 된다. 우리나라 사람 둘 중 하나가 눈에 띠면 산다고 한다. 나 역시 평소에 극도로 절제하는 편인데도, 성급히 구매하고 후회하는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다.

신용카드가 위험하다

성경적 경제 원리의 첫 단계는 부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다. 살 집을 사기 위해 임시로 빚을 진 것은 그래도 좀 낫다. 그러나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다. 특히 먹고 입는 데에 빚을 내는 소비성 빚은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가장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비성 빚의 가장 큰 주범이 신용카드이다. 신용카드는 가정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재정 파괴범이다. 지혜로운 신용카드 사용 원리는 무엇인가?

신용카드의 첫 번째 원리는 '없는 것이 최상이다.' 즉 신용카드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세련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이 세련된 사람이고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득이하게 카드를 사용하려면 몇 가지 용도를 정해 놓는 것이 좋다. 기차표, 주유 등 용도를 정해 놓고 사용한다.

두 번째 원리는 돈이 없을 때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번 달에는 카드로 빼서 쓰고 다음 달에 갚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위험한 생각이다. 특히 생활비가 바닥나서 마음이 허전할 때, 신용카드로 외식을 하거나 쇼핑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 한다. 먹고 즐거운 것은 한 순간이며, 한 달 후 청구서를 받았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세 번째 원리는 연체 통지서를 받으면 그 즉시 신용카드를 파기하라는 것이다. 연체 통지서는 '당신은 이 신용카드를 쓸 자격이 없다'라는 경고장이다. 불량카드를 못 쓰는 프라이팬에 폐식용유를 넣고 떨어뜨려 녹여 버린다. 불타는 카드를 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더욱 효과적이다. 다 녹기 전에 나무젓가락으로 건져서 물로 씻은 다음 화장대 위에 붙여 놓고 두고두고 보면서 교훈으로 삼길 바란다.

가전제품은 몇 년 사용할까?

최근 발표된 1인당 국내총생산은 미국이 56,000달러로 28,000달러인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높다. 그런데 가전제품 값은 절반이다. 그러니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보다 4배는 높은 셈이다. 이렇게 소득수준이 차이가 나니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4배는 오래 써야 하지 않을까? 미국 사람들은 가전제품을 한번 사면 몇 년을 쓰는지 살펴보자. TV를 사면 평균 11년을 사용하고, 세탁기 13년, 냉장고 15년, 가스레인지 18년이라고 한다. 이것은 평균치니까 더 오래 쓰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한 달이라도 더 오래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미국 제품이야 튼튼하니까 그렇게 오래 쓰지요”라고 말한다. 요즘 우리나라 가전제품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가 1등이다. 그러니 우리도 미국 사람들보다는 더 오래 썼으면 좋겠다.

불황에는 소비를 늘려야 한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 소비를 많이 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불황이라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무슨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다. 소비 중에는 줄여야 할 소비가 있고, 늘려야 할 소비가 있다.

경제 불황 때 늘려야 할 소비는 영세민들이 파는 품목들이다. 야채, 떡, 김밥 같은 것들은 많이 사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서민 경제가 돌아간다. 사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먹어도 큰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기업들은 호황이든 불황이든 스스로 생존전략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굳이 대기업을 염려해서 과분하게 물건을 사줄 필요는 없다. 우리 재정만 타격을 입게 된다.

우리 가정에서 특히 지출이 많은 항목이 있다. “교”자가 들어간 비용 세 가지 항목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 번째가 교제비이다. 교제비에 속하는 외식비와 부조금을 줄여야 한다. 또 하나는, 교육비이다.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교통·통신비이다. 자동차 유지비, 인터넷 사용료, 휴대폰 요금 등을 줄여 보자. 이들은 외국에 비해 우리 가계에서 비중이 큰 항목들로 주의하여야 하는 지출들이다.

소비 이외의 행복

앞에서 경제학 교과서의 행복을 소비 나누기 욕망, 즉 “행복=소비/욕망”이라는 공식으로 표현한 바 있다. 그런데 소비는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 없다. 다시 생각하여 볼 것은 행복이 소비에서만 오는가 하는 것이다. 돈 들지 않는 행복도 있다. 꽃가꾸기, 등산 등 건전한 취미활동을 통하여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돈 드는 행복도 있다. 구제, 자선, 봉사활동 등 남에게 베푸는 즐거움은 돈으로 사는 소비의 행복을 넘어서는 큰 행복이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들볶이고, 성적이 내려가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친척들 대소사로 분주하고, 이런 걱정들도 마음만 돌이키면 행복임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방영된 프로그램이 ‘전원일기’고,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초원의 집’이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특징은 별다른 사건도 없이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아늑다온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초원의 집』을 집필한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예수를 훌쩍 넘긴 나이에 이 소설을 썼다. 그녀가 이 소설을 쓴 동기는 식구들끼리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였다고 한다. 오늘 고달픈 일상이 마음만 바꾸면 행복임을 깨닫게 된다. 오히려 고단한 삶에서의 일상의 행복을 기쁘게 누리 보자. ☺